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중국, 긴축통화정책으로 전환

□ 최근 중국정부는 인플레이션 및 자산버블 우려가 확산되자 2년여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정책에서 경미한 긴축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함.

- 중국정부는 최근 열린 국가 주요 정책결정회의인 정치국회의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지되어 온 통화완화정책을 온건정책(경미한 긴축정책)으로 수정 전환함.
- 이는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0.25%p 인상하고 금년들어 지급준비율도 6차례에 걸쳐 올렸으나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.4%에 달하고 있고, 신규대출 규모도 이미 정부 목표치인 7조 5천억 위안을 상회하는 등 유동성 확대에 의한 자산버블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상황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.

□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중국경제 및 세계경제 성장세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, 금번 정책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공존함.

-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향후 중국경제 둔화 및 세계경제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한 상황임.
-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민은행이 본격적인 긴축통화정책 시행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, 서부대개발 등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향후 몇 년간은 두 자릿수 내지는 한 자릿수 후반 수준의 고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.
- 또한 급격한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향후 순조로운 정권이양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번 정책의 영향이 예상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음.

(중국증권보, Record China 12/7)